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 개최

‘전주사회혁신한마당’ 온·오프라인 개최

세계 슬로시티 전문가·슬로어워드 국내·외 수상자들과 슬로시티 철학 토론·미래 비전 모색

전주시가 세계 슬로시티 전문가들과 함께 느림과 행복 등 슬로시티 철학을 주제로 토론하고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장을 연다.

시는 4일 오후 2시 팔복예술공장 카페 쉼에서 세계 슬로시티 전문가 및 슬로어워드 국내·외 수상자들과 함께 ‘세계가 묻고 전주가 답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제5회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를 개최한다.



제5회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 개막 포스터.

‘슬로니스(slowness)와 슬로비즈니스(slow business)’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계슬로포럼은 해외 발제자와 패널이 화상으로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럼에는 이탈리아, 터키, 독일, 한국 등 4개국에서 총 11명이 참여한다. 톤크 소이어 터키 이즈미르 시장의 기조 연설에 이어 독일의 권위 있는 시간관리 전문가이자 ‘슬로비즈니스의 모자’ 저자인 로타르 재이베르트와 리타 게디니 이탈리아 볼로냐 협동조합연합회장이 각각 ‘급할수록 천천히’, ‘볼로냐 협동조합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제

에 나선다.

피에르 조르지오 올리베티 국제슬로시티연맹 사무총장과 안성민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연구원, 황영모 전북연

구원 연구위원, 이홍락 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등도 토론자로 함께한다.

포럼에 앞서 슬로니스 철학과 슬로시티 정책사례의 실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국내·외 수상자를 시상하는 세계슬로어워드도 실시된다.

세계슬로어워드 국내부문 수상자에게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앞장서온 유혜숙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와 토종씨앗수집·보급·연구·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변현단 토종씨드림 대표가 선정돼 사례발표를 진행한다.

국외부문 수상자로는 에너지 중립적인 삶을 위한 정책을 펼쳐온 안 세튼 네덜란드 보르커르 오도른 시장과 이탈리아 전통음식인 ‘콜라텔로(collatello)’와 연계한 환경 정책에 힘써온 마시모 스피겔올리 이탈리아 지벨로 시장이 영예를 안게 됐다. 국외 수상자들은 이날 화상을 통해 사례에 대

한 설명을 전하게 된다.

이번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는 전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 도심형 슬로시티 전주의 국제적인 위상을 재정립하고 슬로시티 철학을 기반으로 국내·외 파트너십과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사람과 생태,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 슬로시티를 선도하기 위해 착실히 걸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슬로시티 철학을 실천해온 분야별 세계 최고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통해 슬로운동의 가치를 나누고 슬로시티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60만 이상의 도시 최초로 도시 전체가 슬로시티 재인증 받은 전주시는 지난 1월 슬로시티 재인증 평가에서 3번째 인증을 받으면서 오는 2025년까지 슬로시티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김윤상 기자

5-6일 ‘위대한, 작은 발걸음’ 주제 강연·포럼·전시회 등 진행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와 세계 최초 종이용기 화장품을 선보인 박준수·정미리아 톤28 공동대표 등이 사회혁신가들을 위한 축제의 마당에 뜬다.

전주시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과 6일 양일간 서노송동 사회혁신전주에서 ‘위대한, 작은 발걸음’을 주제로 ‘2021 전주사회혁신한마당’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사회혁신한마당은 코로나19 등 이슈에 가려 조명 받지 못했던 작은 이슈에 주목하면서, 사회와 혁신의 핵심은 작은 것들로부터 구성되고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장으로 마련된다.



행사는 △메인강연_소소익선 △전주의 작은거인들 영화 시사회 △사회혁신전주 활동지원팀 사업결과 공유회 △전주시민 작은행복 사진전 △행복한 순간들 △우리 동네 문제 사랑방 전시회 등 연사 강연 및 포럼, 전시회, 영화제작 및 시사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첫 날 열리는 메인강연_소소익선의 경우 역사와 소셜벤처, 디지털노마드,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혁신을 주도해온 연사들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연사로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비건화장품 소셜벤처 톤28 박준수·정미리아 대표, 윤동희 북노마드 대표, 조소담 닷페이스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한 사회혁신한마당에서는 앞서 추진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리

빙랩-공동생산)’와 ‘사회혁신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사업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와 함께 전주시민들의 소중한 행복을 담은 사진 전시회와 주민들이 제시한 지역 의제 및 문제 발굴 내용 등을 전시하는 공간도 운영된다.

각 프로그램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전주사회혁신한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사는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전북디지털사회혁신센터와 협업으로 구축된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참여 가능하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작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될 것”이라며 “참여해주신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버스승강장, 특색 있는 예술관·안심 쉼터 되다

탄소발열의자·에어커튼 등 편의시설 설치·예술있는 승강장 조성

전주시가 산업단지과 인접한 만성 지구에 안심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만성지구 안심승강장 뿐 아니라 시는 겨울철 추운 날씨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버스 승강장에 따뜻한 탄소발열의자를 설치, 여름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에어커튼을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집진적으로 승강장을 개선해왔다. 동시에 도시 곳곳에 친편익률적인 외형에서 벗어나 지역 특색을 고려한 독특한 외형의 예술있는 승강장을 늘려 도심 속 미술관으로 제공해왔다.

▲기다리던 공간에서 쉬어가는 공간으로

전주지역 버스승강장은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 이는 전주시가 지난 민선6기부터 버스승강장 곳곳에 탄소발열의자와 에어커튼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먼저 탄소발열의자는 열전도성이 우수한 탄소섬유로 제작된 의자로, 전기에 연결해 작동 온도(17℃)와 타이머(오전 6시~오후 11시)를 맞춰두면 의자의 온도가 평균 30℃ 이상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 탄소섬유로 제작돼 낮은 소비 전력만으로도 열의 전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어, 매일 버스 운행시간(오전 6시~밤 11시) 동안 의자를 따뜻하게 데워도 전기가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커튼이 가동돼 버스승강장이 무더위쉼터로 제공되고 있다. 바깥의 무더운 공기를 차단해주는 에어커튼은 지난 2018년 중앙시장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66개 승강장(334개)에 설치됐다.

발열의자와 에어커튼 외에도 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에 △미세먼지농도측정기 △공

기청정기 △음수대 △자전거보관대 △장애인일람벨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왔다.

▲버스승강장, 예술 감상하는 지붕 없는 미술관이 되다!

전주시는 승강장을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드는 예술있는 승강장으로 바꾸기도 했다. 예술있는 승강장은 지난 2017년 전주역 앞 첫마중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7곳에 조성됐다.

대표적으로 전주지역 3.1운동의 역사현장인 전주신흥학교 앞 버스승강장은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승강장으로 탈바꿈했다. 이곳에는 신흥고등학교에서 제공한 무더운 공기를 차단해주는 에어커튼 3.1운동 관련 역사기록 사진과 시대 변천에 따라 변화된 태극기의 모형을 전시, 소설 ‘어린왕자’를 모티브로 지역 예술작가의 손길로 만들어진 조형물이 설치되기도 했다.

또한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심장부인 전주한옥마을 주변 시내버스 승강장의 경우 마치 역사관을 방문한

것처럼 조선왕조의 건국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어졌다.

시내버스 승강장 외에도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도 지역예술가들의 참여로 특색있는 곳으로 변화했다.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효천지구 등 서부권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부시외버스 간이정류소의 경우 지난 2017년 캠핑카와 카페를 결합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시설이 낡아 이용하기 불편했던 완산동 시외버스간이정류소도 전주의 문화·예술과 완산동의 역사가 담긴 예술있는 승강장이 됐다. 이곳에는 ‘용머리고개’라는 지명과 과거 대장간과 골동품점, 민간신앙이 발달했던 지역 특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시는 향후에도 탄소발열의자·에어커튼 설치, 미세먼지 회피 승강장 조성, 예술있는 승강장 조성 등을 통해 버스승강장을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쉴 수 있고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 나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공무원, 사랑의 헌혈운동 전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 공무원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나섰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전주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했다.

사랑의 헌혈운동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전북지역 혈액 보유량이 3.2일분에 불과해 혈액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등 혈액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헌혈에 참여한 전주시 공무원과 시민에게는 헌혈증과 함께 △혈액검사 △합합체 △빈혈검사 △간기능 검사 △B·C형 간염검사 △매독항체 검사 △에이즈검사 등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영화관람권 등 기념품도 제공됐다. 헌혈증은 향후 본인이나 가족의 수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기부도

가능하다. 향후 시는 시민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혈액수급난 해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주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개최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혈액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전주시 공무원들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헌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따뜻한 생령 나눔 실천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헌혈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은 연중 △헌혈의집 고사동센터(완산구 전주객사5길 46) △헌혈의집 효자센터(완산구 용머리로 57) △헌혈의집 덕진센터(덕진구 기린대로 470) △헌혈의집 전북대센터(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 내) △전북혈액원(덕진구 혁신로 463) 등 5개 헌혈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